

보도시점 2024. 6. 16.(일) 배포 시 배포 2024. 6. 16.(일)

농식품부, ASF 방역 추진 상황 현장 점검

- 경북 영천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6.15일)과 관련, 경북도·고령군 방역 추진 상황 및 기관별 준비 태세 현장 점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6월 16일(일)에 경북 고령군청을 방문하여 경북도와 고령군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북에서 금년 1월 15일에 영덕군에서 발생 후 5개월여 만에 영천시 소재 농장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등 초동방역 조치를 취하는 한편, 역학농장 등에 대해 정밀·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장 및 축산 시설을 집중 소독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와 고령군 방역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한 후 방역 현안 사항을 논의하였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북지역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계속 검출되는 상황을 볼 때 더 이상 ASF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울타리 점검 등을 실시하고, 축산관계자들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점검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담당자	사무관	이주원 (044-201-2537)